

## Personalized Medicin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 훈 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동일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은 개인간에 차이가 많고 이에 는 연령, 성별, 인종, 환경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인 변이성이 관여하고 있다. 약물유전학과 약물유전체학의 발전과 유전자 분석 및 정보 기술의 발달로 개별화된 맞춤형 예방 진료, 치료 방법의 선택, 약의 용량 조정, 약의 안전성 확보, 가족 상담 등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Personalized medicine에 대한 의료인의 지식과 이해도는 낮고 이를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미미하며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교육 대상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시기는 의과대학 졸업전 교육, 전공의 수련교육, 연수교육 등이 해당되고 특히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서는 예방진료, 약의 선택 및 부작용 감시와 같은 환자 관리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 곡선에 따라 단계별로 반복되어 수직적인 통합이 일어나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personalized medicine의 근거중심적 접근, 유전체 검사의 결과 해석 및 진료내용 검토, 환자 상담 및 교육, 윤리적 문제, 유전학 및 임상 약리학적 기본 지식, 비용효과, 한계점, 임상 시험에서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의과 대학 학부 교육에서 교육과정 배정 시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느 때도 가능하지만, 약리학, 유전학, 역학, 임상 약리학, 예방 진료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적절한 교육 과정은 환자-의사-사회 교과목 혹은 문제중심학습이나 사례중심 학습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다. Personalized medicine에 대하여 약의 선택이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분자 수준의 만능적인 해결책이라고 과도한 기대를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통합의료의 한 국면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박 훈 기 ◆

약력

- 198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0. 가정의학과 전문의
- 2000. 스포츠의학 전문의 취득
- 1995-현재 한양의대 가정의학과 부교수
- 2001-2002. USC medical education fellowship
- 2002-2003.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MSc of sports and exercise medicine
- 2004-2007 대한가정의학회 교육이사
- 2006-현재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정보이사